

가자! 서울로!

7월 13일 총파업!

총파업 상경투쟁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금속노조 총파업 상경투쟁이 진행됩니다. 서울 양재동의 현대차 본사를 정점으로 하는 재벌 중심의 체제가 기업들의 이윤놀음을 넘어서 하청업체의 노사관계까지 주무르는 현실을 바꾸고자 우리는 서울 양재동으로 갑니다. 재벌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 임단협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러 이번주 금요일 서울로 갑니다.

임단투 승리! 재벌 적폐 청산! 사법농단 규탄!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이 야심차게 3불 (임금인상 불가, 하후상박 불가, 노사공동위 불가)을 외쳤지만 슬그머니 한 발 빼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지부와 임단협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3불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부품사는 양재동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하후상박 임금인상, 노사공동위 구성, 지부 요구안, 지회 단협 개정안 등 많은 요구사항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밝혀진 사법농단을 보면 사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자본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부 콜텍지회도 그 대표적인 피해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3일 상경투쟁에서 13시30분 대법원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양재동으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7월 13일 양재동에서 뭉칩니다.

지난주부터 지부장 동지를 비롯해 지부 임원, 상집 간부들이 지회 간부들과 함께 현장순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상경투쟁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또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나뵈러 갑니다. 13일 총파업 상경투쟁이 올해 우리 임단투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꼭 많은 지부 조합원들을 서울에서 뭉기를 바랍니다.

현대모비스충주지회 신규 설립!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노동자들은 7월 8일(일) 17시 설립 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금속노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 금속노조의 깃발이 펄럭이게 된 것입니다.

충주공장에는 현대모비스 소속 정규직은 사무관리직 200여명 수준이고, 생산은 9개의 하청업체 800여명의 노동자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비정규직 공장입니다. 작년부터 현대모비스 내에 금속노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성, 아산, 평택, 광주, 울산에서 연달아 금속노조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충주공장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충주공장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어느 신규지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바랍니다.

* 주요 일정 *

- ☐ 7.13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7/9(월) 11시 충북도청
- ☐ 2차 조정회의
7/9(월) 16시 충북지노위
- ☐ 7.13총파업 현장순회
7/10(화)~12(목)
- ☐ 7.13 총파업
7/13(금) 13시30분 대법원
15시30분 양재동